

한-인도 첨단산업 협력 확대 위한 맞손 잡아

- (비즈니스 포럼) 철강, 조선, 디지털, 에너지 등에서 20개 협력 MOU 체결
- (비즈니스 파트너십) 의료기기, 소비재 등에서 14건, 4천8백만불 수출계약 성사

이재명 대통령 인도 순방 계기, 4월 20일 오후(현지 시간) 뉴델리 소재 바라트 만다팜 행사장에서 「한-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」(주최: 산업통상부, 주관: 한국경제인협회)이 개최되었다.

이번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 가운데, 삼성 이재용 회장,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, LG 구광모 회장, 포스코 장인화 회장,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하였다. 인도 측에서는 인도상공회의소(FICCI) 아난트 고엔카 회장, Sanmar 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, Essar 그룹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, JSW스틸 자얀트 아차라 CEO 등 주요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하였다.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.

이번 포럼 계기 조선, 철강, 디지털, 에너지 등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의 민간 MOU가 체결되었다. 주요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- ① HD한국조선해양은 NSHIPTN 및 SMFCL*와 함께 인도 내 신규 조선소 설립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합작법인 설립 추진 등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.

* SMFCL(Sagarmala Finance Corp Ltd) : 인도 해운수로부 조선업 지원정책 집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은행 금융회사,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사모펀드^{MDF} 설립 예정

- ② 현대자동차와 TVS 모터 컴퍼니는 「친환경 3륜 EV 공동개발 MOU」를 체결하고, 인도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3륜 전기차의 공동개발과 현지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③ 포스코홀딩스는 JSW 그룹과 연간 600만톤 규모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갖춘 인도 일관제철소 투자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MOU를 체결하였다.
- ④ GS건설은 아리에너지와 인도 노후 풍력단지의 고효율 터빈 교체를 통한 리파워링*(Repowering)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.
 - * 리파워링(Repowering) 사업 : 노후 발전소의 터빈을 최신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여 발전량, 효율, 수익성 등을 높이는 사업
- ⑤ 네이버는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(TCS)와 인도 시장에서의 AI, 클라우드 B2C 서비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.

한편, 산업부는 다음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사장 강경성, 이하 KOTRA)와 공동으로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「한-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」 행사를 개최하였다. 동 행사에는 제조업, 한류,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 40여 개사와 인도 기업 100여 개사가 참석하였으며, 총 14건, 약 4,800만불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었다.

이번 포럼은 한-인도 간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층 확대하고, 양국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. 김 장관은 “정부는 한-인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사업 기회가 창출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	책임자	과 장	민문기 (044-203-5710)
	아주통상과	담당자	사무관	강홍구 (044-203-5712)